

지역 소식통

고창군, 겨울철 동파방지 특별대책 추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결·동파 대비 단계별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각별한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계량기함 내부를 이불이나 헌옷 등으로 채우고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적은 양의 수돗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파 발생 시 담당 공무원 6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처리반과 비상급수반을 구성하고, 13개 대항업체로 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13개소 지정

부안군은 20일 2024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에 농장 1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인증 제도이다.

지금까지 부안군에는 총 142곳(소 38, 돼지 11, 닭 76, 오리 17)의 깨끗한 축산농장이 지정되었다. 내년은 10곳을 늘려 총 152곳(누계)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하면 현장 평가를 통해 축사 바닥과 분뇨처리시설 관리상태, 농장 악취 발생 여부, 축사 내·외부 소독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지정 기준은 축종별 평가표의 총점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디지털 기술, 편리한 일상생활'

고창군, 언제 어디서나 건강체크·최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완성

고창군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주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돕는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고창군 라이브스튜디오)에서 '2024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고창군 디지털타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총 사업비 11억1900만원)'에 선정돼 추진됐다.

고창군 디지털타운의 핵심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진'이다. 먼저, 고창군 14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 등에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주민 누구나 언제든 체지방·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회원등록을 하면 건강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자세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처방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과 군청 회의실, 스마트스튜디오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도 완성됐다. 고창군 면적은 서울보다도 넓어, 회의 한번 할 때마다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마련되면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의 회의까지 집약 면사무소만 나가면 된다. 또 군은 스마트스튜디오를 활용해 건강강좌, 퀴즈대회 등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군 스마트 스튜디오는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고창마켓 라이브 방송을 위한 전문 장비와 시스템이 마련되고, 주방 컨셉의 쿠킹 스튜디오와 개인 혼자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및 방송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실로 구성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절기 취약계층에 버팀목'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의료비 지원

정읍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생계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안전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맞춤형으로 신속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11월 기준, 시는 총 1427가구에 15억 2000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급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 4500여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실직 휴·폐업,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망복지지원단 콜센터(☎388-0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상담과 현장 확인 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71만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현안 총집합'

송전선로·안보·안전까지

정읍시가 지역 통합방위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민·관·군·경의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9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군·경 통합방위 관련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지역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통합방위태세 발전과 협조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시민 불안 해소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군부대는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 내 민·관·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정읍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을 당부했으며, 정읍경찰서는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위해 CCTV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재난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하수도 운영 환경청별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 평가는 하수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통분야와 운영·관리 분야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이후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노력 등 추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시는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상위 16위에 포함되며 환경청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환경부 장관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하수도 운영과 관리의 체계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으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시가 공공하수도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공정 양육 인식 확산

부안군은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관내 3개 학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부안군을 비롯한 아동학대 유관기관인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학교 정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등하교하는 아동 및 보호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양육129법칙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들이 직접 캠페인 취지에 맞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홍보 효과를 확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군민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동과의 올바른 소통 방법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행복한 미래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잇다...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

정읍시가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 정보를 제공했다.

시 취업중개센터(센터장 하은주)는 20일 전북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 청년과 지역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 정읍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일자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취업중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전북



과학대학교의 후원과 청년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각 기업들이 채용정보와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구직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통하며 기업체와 구직자 간 1:1 면접을 통해 현장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기업 및 지역 홍보관 부스도 운영돼 변화하는 취업 환경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직업군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 청년지원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